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지난 서울·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지만 집권 여당을 집어삼킨 민심의 쓰나미가 이젠 야당마저 집어 삼킬 분위기다. 일단 재보궐선거 결과가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달리 말해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선거 직후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민심을 무겁게 느끼다' '변화하겠다'고 했다. 그러기에 국민 중 일부는 지난 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변화하지 않을까 기대 하기도 했다. 그 변화는 국민의힘이 여의도 국회 기록권을 벗어나 야권 통합이나 보수와 중도가 함께할 수 있는 개방적 정치 혁신, 수권정당으로서의 정책 대안 제시, 국민과 소통하는 시스템 등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거 후 약 1개월 동안 국민의힘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지 못했다. 개방적 정당 개혁보다는 정치 일정을 들어 당 대표 선거로 직행했다. 그러면서 새어 나오는 말은 개혁이 아닌 자강이다. 당의 종합적 정책 대안 제시보다는 중구난방의 정부 때리기만 계속해 정치인 개개인 인지도 경쟁만 하는 것으로 보인

이번엔 야당 심판인가!

다. 소통도 달라진 것이 없다. 게다가 서울·부산 시장 선거 승리에 대한 자만의 모습마저 보인다. 분명 선거 직후 모두가 야당의 승리가 아닌 집권 여당의 패배였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야당의 자력에 의한 승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 과정에서 자신들의 공을 내세우며 마치 킹 메이커인 양 차기 대권주자들을 앞차려까지 시킨다. 지난 4월 26일 데이터리서치의 서울·부산 시장 선거 평가 조사에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기여한 인물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박형준 두 후보라는 응답이 22.1%를 차지했다. 안철수라는 응답은 17.0%, 김경인이라는 응답은 8.7%였다. 즉 선거에 승리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의 후보나 선거를 총괄했던 인물의 기여는 22.1%, 8.7%에 불과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자 민심이 이번에는 야당보다는 야당을 주시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야당도 심판하려 하는 듯하다. 심판의 장은 바로 국민의힘 대표 경선이 될 것이다. 국민의힘 대표 경선에서는 중진이 먼저 움직였다. 출마가 예상되었던 주호영·나경원·권영세와 일찍이 출마 선언을 한 홍문표 등이다. 국민은 비록 제대로 당 혁신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이 출마를 하지만 그래도 그야말로 중진들이기에 이들을 통해 대선 승리 전략이나 이를 통한 정권교체의 비전이라도 보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정권교체와 관련해 구체적 전략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적임자다'라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자 초선 중심의 젊은 후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다. 과거 같은듯 초선이나 원내 경합이 없는 의원들은 대표가 아니라 최고위원에 출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바로 당권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정당사상 초유의 사태다. 여론도 심상찮다. 당초 중진 강세로 예상되었던 판세가 바뀌고 있다. 5월 8일~11일 한길리서치 조사에는 나경원이 15.9%로 1위를 했지만 이준석이 13.1%로 2위를 하면서 급부상했다. 그리고 14일 PNR조사에서는 이준석의 지지율이 20.4%로 15.5%의 나경원을 처음으로 앞섰다. 이뿐만 아니라 초선의 경우도 8.4%로 4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의힘이 재보궐선거 후 국민이 바라는 당 개혁·혁신 대신 다선 의원과 당 기록권을 강화하는 즉 자강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민심의 심판이라 할 수 있다. 모두들 '민심은 천심'이라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 이런 말들은 그냥 말뿐이어서 레토릭에 불과하다. 현재 국민의힘 상황은 레토릭으로 민심의 요구를 모면하거나 본질을 가리려 했던 과거의 정치를 그대로 하려다가 국민에게 들롱이 난 것과 같다. 이제는 국민이 정치인들에게 과거처럼 순진하게 속거나 그냥 두고 보지도 않는다. 즉 정치의 대상인 객체로만 남아 있으려 하지 않고 직접 나선다. 정치의 주체가 되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렛대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젊은 후보를 내세워 국민의힘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이러한 판단 주기도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社說

전기 자전거 느는데 안전사고 대책이 없다

공유형 자전거 등이 크게 늘어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의 자전거 인프라는 취약한 실정이다. 공유 전기 자전거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별다른 허가 절차 없이 운영할 수 있어 앞으로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전통킵보드가 폭넓게 보급된 상황에서 이제 광주는 '두 바퀴' 운송수단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IT 그룹인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광주 전 지역에서 공유형 전기 자전거 서비스인 'T-바이크'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광주에서 500여 대가 운행되고 있는 T-바이크는 전통킵보드를 정해진 보관소 없이 어디에서든 휴대전화 앱만으로 이용할 수 있다. 킵보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짐을 실을 수 있어 1시간 이용하는데 6000원을 내야 하지만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의 자전거 전용도로 등 안

전 인프라는 극히 취약하다.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도 많은 데다 무늬만 자전거 도로인 곳도 적지 않다. 전체 자전거 도로는 661.39km(2019년 기준)로, 전용도로(자전거만 통행가능)는 128.64km, 자전거 전용차로(차도 일부중 자전거만 통행가능)는 12.58km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이런 사정 때문에 공공 자전거 '타랑개'를 도입했음에도 상무지구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 자전거나 킵보드는 도시 오염을 줄이는 미래 운송수단이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등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광주시는 자전거 이용자는 물론 보행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대전제 하에 안전 인프라 구축에 보다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법규 준수와 헬멧 착용 등 운전자들 안전의식도 중요하다.

국립트라우마센터 방향 재설정 필요하다

5·18 41주년을 맞아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와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18기념재단은 그제 개최한 '2021 광주민주포럼'에서 국가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주요 의제는 광주에 들어설 예정인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였다. 지난 2012년부터 광주트라우마센터를 운영 중인 광주시는 국립 트라우마센터 유치에 성공했지만, 옛 국군광주병원에 건립한다는 계획만 세웠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립 트라우마센터의 방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이 이번 포럼에서 제시한 의견은 의미 있게 받아들일 만하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국립 센터가 기존 광주센터의 역할을 약간 확장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연한 지적으로, 국립으로 운영되는 만큼 5·18뿐만 아니라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부마항쟁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센터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폭력 피해자의 치유와 재활 사업은 물론 치유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업도 병행해야 한다. 그동안 광주센터가 치주해온 임상 중심적 혹은 개인 차원의 치유에서 더 나아가 사회문화적·통시적 차원까지를 고려한 집단 트라우마 치유 개념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치유 과정 중에 생존자들이 사회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을 수 있는 치유 공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국립 트라우마센터 설립 근거인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하위법령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센터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공동체 복귀와 소통을 위한 치유 공간이 되도록 광주센터의 역할을 약간 확장하는 수준에

종교칼럼

아빠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다시 아빠로



최현열
광주 연합회 담임목사

'가정의 달'이라 불리는 오월은 어느 때보다 가족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넘치는 달이다. 공교롭게도 무엇을 선물해야 할지 고민도 커지고 지출도 많아진다.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는 복음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가족에게 지출이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우습겠지만 근로자의 날로 시작하니 가정의 달을 위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머리를 스친다. 근로자들의 사기도 올라가고 가정의 달 특별한 지출에 부담도 덜어주고 말이다. 라디오를 듣는 중에 오월에 지출이 많게 되니 일 년 동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재무상담사가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역사적이게도 가정의 달 오월은 가장 부담스러운 달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부모님 정기고 자녀도 정기고 아내를 빼 놓을 수 없으니 부부의 날에는 꽃다발과 선물도 준비해야 하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아빠의 지갑이 비는 만큼 한숨이 깊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하기에 아버지의 어깨는 오월이 가장 무거운지

도 모르겠다. 어릴 적 아빠에 대한 나의 추억은 이렇다. 아빠가 일을 마치고 퇴근할 무렵에 동생과 함께 동구 밖까지 마중을 나가곤 했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아빠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며 뛰어가면 자전거를 멈추시고 나는 뒷자리에 동생은 앞자리에 앉히고 집으로 향하셨다. 비포장 도로를 달리며 달릴거릴 때 마다 딱딱한 뒷자리의 통풍으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아빠의 등을 꼭 껴안고 있는 것이 훨씬 푸근하고 따뜻하기에 참아 낼 수 있었다. 엄마는 퇴근하시는 아빠를 기다리며 된장찌개를 끓이시고 우리 가족은 한 상에 둘러 앉아 맛난 저녁을 먹곤 했다. 가끔 일찍 잠들어 버린 나를 번쩍 들어 자리를 옮겨 주실 때면 분명히 껴음에도 그 기분이 좋아 잠자는 척을 계속했다. 나를 그런 자세로 번쩍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은 세상에서 오직 아빠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아빠가 나를 들어서 옮기지 못하게 될 무렵부터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했던 것 같다. 그 후 어린 나는 철이 들어 등직해져 갔지만 웬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데면데면해져 갔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나는 대학생 자녀를 둔 아버지가 되었고 나의 아버지는 팔손을 넘어 구순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제 노인이 되어 버린 아버지! 그런데 언제부러인가 모든 자녀들은 아버지라는 호칭을 쓰는데 아버지는 당신을 가리킬 때 아빠라고 하셨다. "아빠는 괜찮다" "아빠가 이제 몸이 약해 졌다" 이렇게 스스로를 아빠라 칭하신다. 내가 아버지라 부르지도 40년 가까이 되는데 말이다. 마음이 몽글해졌다. 아버지는 어린 아

들딸들이 아빠라 불러 주던 때를 그리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با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개역개정) 하나님은 저 하늘 멀리 있고 무서운 눈으로 심판을 하려고 버리고 있는 신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또한 아빠로서 친근함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며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고 계시고 친밀한 관계를 바라고 계시는 분임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라 하겠다. 어쩔 우리의 아버지들도 아빠라 부르며 언제든 뛰어와 품에 안기던 자녀들의 천천난만 한 때를 다시 보고 싶지는 않으실까? 아빠라 부르며 눈높이를 맞추어 웃음꽃을 피웠던 어린 시절, 존경스럽고 인생의 선배로 든든한 바위로 여겨지던 아버지, 백발이 되어 늙고 약해진지 아빠, 다시 아빠라 불러 보면 안 되겠는가? 등급이 없는 저 무등산처럼 우리의 아빠는 등급이 없다. 부자이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던 아버지의 등은 이 시대의 진정한 무등이 아닐 수 없다. 부모님께 돈을 드려도 좋고 마음 담은 선물을 드려도 좋다. 오늘은 다시 용기를 내어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빠라 불러 드리 보자. 내 나이 50, 60이 되었어도 구순이 되신 아버지를 감히 아빠라 불러 드리 보자.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거나 곁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으로 "아빠"라 큰 소리로 불러 보자.

컬러풀 뮤지컬 '광주', 감동과 희망을 노래하다

민들은 대응 방안을 놓고 갈등에 빠진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4시 공수부대가 도청의 시민군을 급습했다. 언론에서는 "6시 현재 민간인 피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광주는 완전히 고립됐다. "새벽은 길었고 우리의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장면 전환과 박진감 넘치는 음악과 노래, 배우들의 단계 안무는 지루함 틈이 없이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뮤지컬에서는 상황에 따라 '입을 위한 행진곡'이 배경음악으로 그리고 낮게 깔리기도 하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차게 외쳐 부르며 관객들에게 그 울림을 주고 극중 분위기를 이끌었다. 오케스트라의 음악 또한 관객들과 호흡을 위해 처연하고 풍부한 선율, 긴장감 있고 장엄한 분위기로 음악적 완성도를 높여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은 수준 높은 공연이었다. 무대 디자인은 도청과 보안부대, 야학, 실내와 실외 등 장소의 상징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전후좌우, 높고 낮음의 입체적인 프레임으로 정서적인 감정의 깊이를 풍부하게 표현했다. 투사되는 영상은 역사적 사건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달했고, 밝고 어두운 조명은 따뜻함과 차가움을 시민들의 군상을 실루엣으로 그려냈다. 아래로 깔리는 연기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현장의 혼돈을 그려냈다. 뮤지컬 공연이었지만 그 당시 유인물과 군용 잠자와 무전기, 카세트라디오, 주먹밥 등의 소품도 완성도가 높았다. 공연 중 그 당시 방송과 육성음은 현장성을 높였고, 절제된 내레이션은 관객들에게 역사적 사

실의 표현력과 공연의 흐름을 충실히 이어줬다. 이번 공연의 압권은 뭐라 해도 배우들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캐릭터성이다. 시대와 역사성을 담보한 공연이기에 컬러들이 다소 진부할 수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성격에 맞는 과감하고 상당히 세련된 화려한 의상에 깎짝 놀랐다. 배우들의 캐릭터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과감하게 색깔을 입힌 의상의 컬러링에 재미와 개성이 묻어났다. 그에 반하여 군인의 옷과 군복은 그 잔혹성을 충분히 증명했다. 뮤지컬 광주 배우들의 라인업이 매우 화려했고, 그 당시 시민들의 반민과 아픔, 고통, 진실을 전달하려는 자신감과 호소력은 가창력과 목청껏 외치는 구조 또한 압권이었다. 몸을 사리지 않고 대동단결하는 단체 군무를 할 때는 역동적이고 완벽한 안무를 선사했고, 합창을 할 때는 혼신의 힘을 다해 아픔과 희망을 노래했다. 이를 통해 배우들이 이번 공연에 임하는 자세를 읽을 수 있었다. 배우마다 뮤지컬 광주의 한 팀으로서 완벽한 동일체가 되었다. 함께 광주를 외치고 뛰고 노래하던 그 열정에 존경을 보낸다. 이번 공연은 뮤지컬이라는 대중성 있는 예술 장르로 그동안 5·18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젊은층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가능성과 희망을 발견한 것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또 광주시민과 역사 앞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 반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잡회를 통해 응서하고 화해하는 기회가 가까이 왔음을 느낀다.

無等鼓

5·18광주항쟁 바로 다음 해인 1981년 열린 MBC 대학가요제에서는 한양대생 정오차의 '바윗돌'이 대상을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불은사상 유포'를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다. 광주일고를 나와 한양대에 재학 중이던 정 씨가 어느 방송 인터뷰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되었다. "이 노래는 5·18 때 죽은 친구를 위한 진혼곡이며 '바윗돌'은 5·18묘지의 묘비를 상징한다." 우리들이 무심코 흥얼거렸던 가요 중에는 의외로 5·18과 광주를 담은 노래가 많다. 김원중의 '바위섬'은 5·18 이후 고립된 광주를 상징하는 노래였다. 이선희가 부른 '오월의 햇살'은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이들을 추모했다. "어두운 밤 함께하던 젊은 소리가 / 허공에 흩어져 가고 / 아침이 올 때까지 노래하자던 / 내 친구 어디로 갔나 / 머물다 간 순간들 / 남겨진 너의 그 목소리 / 오월의 햇살 가득한 날 / 우리 마음 파스하리." 시대의 가인(歌人) 정태춘은 '5·18'을 아예 노래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아, 우리들의 오월은 / 아직 끝나지 않았고 / 그 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 하나도 회수되

지 않았네 /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 소년들의 무덤 앞에 /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지난해 나온 나훈아의 '엄니' 또한 광주의 아픔을 담은 노래다. 6월항쟁 무렵 만든 노래라니 발표하기까지 꼬박 33년이란 긴 세월이 흐른 셈이다. "엄니 엄니 무등산에 꽃 피거든 / 한 아름 망월동에 심어 주소 / 들리자라우 엄니 들리자라우 엄니 / 인자 그만 울지 마시오." 이밖에 인순이는 '여기가 어디냐'에서 '광주 광주 다시 보자 / 내 어찌 너를 잊으랴'라며 꺾음에도 그리던 광주를 간절히 외친다. 오월 그날이 다시 올 때마다 늘 우리들의 가슴을 울리는 노래는 '오월의 노래'다. "왜 찢렸지? / 왜 쪼았지? /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오늘은 41년 전 11공수부대가 도청 앞에서 금남로에 모인 수 만 명의 시민을 향해 집단 발표를 자행한 날이다. 당시 공수부대 진압군들도 지금은 어느덧 60대가 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 아예 노래 제목으로 삼기도 했다. "아, 우리들의 오월은 / 아직 끝나지 않았고 / 그 날 장군들의 금빛 훈장은 / 하나도 회수되

오월의 노래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 고



황수주
광주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뮤지컬 '광주'. 공연 시작 전 무대 전면을 꼭 채운 '광주'라는 희색 글씨에서 힘이 느껴진다. 뮤지컬 광주는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잊혀지지 않는 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들의 사랑·명예·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찬탈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 작전명 '화려한 휴가'. 유인버서를 퍼뜨려 폭력 시위를 조장해 군인들이 투입될 명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각종 모략을 일삼는 '편의대'를 투입하고 광주는 점점 고립되어 간다. 임무를 위해 광주로 파견된 광주 출신의 한수는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시민들 틈에 잠입한다. 그러나 무고한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연행되는 참상을 목격하면서 그는 혼란을 겪게 된다. 불시에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광주는 혼란에 빠진다.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 시작되면서 한수는 시민들을 돕고, 시